

본문 : 요한복음 11 장 8-16 절

제목 : 우리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1. 낮과 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 한 사건이 제자들에게도 큰 트라우마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유대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8 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니 돌로 맞아 죽으실 뻔 한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요단 저편(동편)의 베다니에 좀 더 잡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단 이편(서편)의 베다니로 가야겠다고 제자들을 타이르고 계신 것이구요.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낮과 밤이 12 시간씩이지만, 지금은 낮이니 괜찮다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지역은 산악지역과 광야지역으로 돌부리가 많아 걸려 넘어지기 쉬운 지형입니다. 밤에 걸어다니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어린 시절 밤에 화장실을 가던 때가 생각나네요. 여름에 수박을 먹고 자면 항상 밤중에 화장실을 가야합니다. 가족들이 한 방에서 잠자리를 펴고 잤기 때문에 한 밤중에 문까지 나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누워 있는 형제들을 밟거나 물건에 걸려 넘어진다거나 밤중에 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낮에 걸어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낮이란 예수님이 함께하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밝은 계시의 태양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는 시간이지요. 이적과 기사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실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낮 12 시간 동안 걸어다닐 때 실족하지 않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는 표적을 나타낼 때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죽음의 세력을 향해 걸어가시고 거기서 태양처럼 빛을 발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제압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히 나타내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 부활의 이적 이후에 더이상 표적을 드러내시지 않으실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가나의 포도주 이적, 고관의 아들 치유, 베데스다 연못의 38 년 된 병자 치유, 오병이어, 물위를 걸으심, 소경 치유의 여섯 기적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표적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드러내는 초일등성의 폭발과 같은 빛나는 계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으로 내 물리게 될 것입니다. 밤의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적과 기사를 멈추시고 전능한 능력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제자들은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2. 요단 이편과 요단 저편의 베다니

요한복음 10 장 후반부와 11 장 전반부는 베다니라는 공통된 지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 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 이편의 베다니는 유대 종교의 심장부로 예수님께 매우 적대적인 지역입니다. 반대로 요단 저편의 베다니는 예수님께 매우 호의적인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 있는 요한의 제자 공동체에 머물면서 그들의 환대를 받으시며 마음을 추스리셨죠.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 이편 베다니로는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 베다니가 적대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단 이편의 베다니로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게 했던 것은 나사로 가족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나саро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그 위험 속으로 자신을 던지고 계신 이유는, 바로 나사로 가족과의 우정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자 상당한 무리의 조문객들이 몰려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саро는 그 지역에서 꽤나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는 지역 유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саро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부를 기반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며 환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구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саро를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우리 친구 나사로", 예수님은 나саро 외에 누구에게도 Philo(친구)라는 호칭을 쓴적이 없습니다. 나саро가 매우 특별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라는 말은 사적인 친구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유한 공적인 친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이자 동맹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саро의 집은 적의 심장부에 위치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саро는 유대종교권력자들의 교구 안에 내통하는 영적인 친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요단 이편과 저편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요단 저편에서 예수님은 환영 받고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으로 대접 받습니다. 하지만 요단 이편은 예수님께 완전히 적대적입니다. 요단 이편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지만, 한쪽에서는 신성모독한다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거의 같은 위도상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까요? 요단 이편에 있는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맹위를 떨치는 곳에 위치한 예수님의 영적 진지이자 해방구가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수 신앙을 마음껏 표현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 예수 잘 못 말했다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단 이편에서도 우리가 숨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3. 아가페 공동체

저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진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정이야 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숨쉴 공간이란 얘기죠. 가정은 기독교 진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환대가 있고, 사랑이 있고, 무조건적인 포용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세상 속에 자리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이 가정 안에서 벌어집니다. 매일 세 끼씩 먹을 것이 공짜로 공급되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랑이 이곳에서 공급됩니다.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하는 곳이지만, 가정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고 나를 대적한대도 가정 안에서는 나를 따듯하게 품어줍니다. 이 힘으로 매일 직장에서 받는 비인간적인 대우와 모멸감을 우리는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족은 요단 저편과 내통하는 요단 이편의 환대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힘으로 죽음의 세력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가정 하나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가정이야 말로 하나님 나라를 총체적으로 순식간에 경험할 수 있는 아가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아가페 공동체를 만들 사명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환대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손님을 위한 사랑방 하나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곳에서 하루 정도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추천서 한 장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환대하며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매달 한 챕터씩 복쉐어링을 하는데, <예수님이 차려 주신 밥상>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먹을 것을 통한 환대를 통해 표현된다'고 하더라구요. 구원의 다른 이름이 환대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환대하여 맞아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우리를 향한 환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하나 교회의 사명은 환대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가정 같은 아가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설 곳이 없는 사람들의 설자리가 되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목장이 환대와 사랑의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발산하는 오아시스 같은 곳, 영적 진지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지요. 목장지기님의 집 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집을 오픈하여 환대를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구체화 됩니다.

4.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 나사로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죽음을 의미하는 지 모르고 "잠들면 곧 일어나겠네요. 위험한데 그냥 가지 맙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나사로, 우리 친구아이가?" 이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친구를 살리려고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간다운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친구라고 한 호칭은 나사로가 유일했습니다. '우리 친구'라는 말 속에 예수님의 인간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롯기 말씀을 설교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 말로 '의리'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의리있고 인간미 넘치는 예수님의 친구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는 친구를 위한 사랑이 적분되어 만들어진 결과였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삶의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친구를 살리러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 장 13 절에 예수님은 친구를 위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기독교는 친구때문에 죽음의 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 붙들려 있는 친구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요단 저편의 영적인 편안함에서 요단 이편의 혼란과 광풍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이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선교란 우정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옆집 사람, 동네 사람들이 나랑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세라면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5. 우정과 환대를 확장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구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친구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누려야 합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고귀하고 순결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아는 것이죠. 사순절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들을 묵상하고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다른 이들을 위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이기 전에 인위적이지 않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우정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집안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함께 차 한 잔 나누며 대화하고, 꿈이 무엇인지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불안을 나누고, 낭패감과 열등감까지 나눌 수 있는 환대, 이것이 나사로 집안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끊임 없이 자기를 소진하였던 나사로의 가정은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안은 일시적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주님께서 이 가정에 오실 때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나사로의 가정과 같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우정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주님께서 낮 열두시의 태양처럼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출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 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무리 밝은 대낮이더라도 내 마음이 절망에 휩싸여 있으면 눈 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눈 앞이 캄캄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과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정과 환대의 관계를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과의 우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셨던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